

색채어의 어원과 음운론적 고찰

성 인 출*

I. 序 論

1. 우리말에서 色彩(빛깔)을 나타내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ㄱ. 회다, 붉다, 푸르다, 검다, 누르다.
- ㄴ. 재색, 하늘색, 배추색, 밤색, 가지색, 쥐색, 살색, 똥색 등.
- ㄷ. 灰色, 茶色, 銀色, 翡翠色, 黃土色 등.
- ㄹ. 黃色, 黑色, 靑色, 綠色, 赤色, 紅色, 白色 등.
- ㅁ. 粉紅色, 朱紅色, 群靑色, 眞紅色, 軟綠色 등.

위—(1.ㄱ)은 오직 ‘색’자를 붙이지 않고 나타낸 固有의 色彩語라 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흔히 五色이라고 한다. (1.ㄴ)은 어떤 색깔을 가진 具體的인 事物에 ‘색’자를 붙여 나타낸 방식이다. ‘색’자를 除外시키면 固有의 具體 名詞만 남는다. (1.ㄷ)은 (1.ㄴ)의 具體的 事物을 漢字로 바꾸고 ‘색’자를 붙인 방식이다. (1.ㄹ)은 색깔을 純粹 漢字로 나타낸 방식이며, (1.ㅁ)은 (1.ㄹ)에 冠形語性格의 漢字를 덧붙여 表現한 방식이다.

그런데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固有의 色彩語라고 할 수 있는 (1.ㄱ)이 對象이다. 앞으로 五色이라 함은 (1.ㄱ)의 색깔을 말한다.

2. (1.ㄱ)도 語感이나 색깔의 程度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表現된다.

구분	음양	가	나	다	라	마	~접 미 사
ㄱ	양	하 양	빨 간	파 란	까 만	노 란	~안
	음	허 연	빨 건	퍼 런	꺼 먼	누 런	~언
ㄴ	양	(힌)	*붉 은	?포 른	감 은	노 른	~은
	음	흰	붉 은	푸 른	검 은	누 른	~은
ㄷ	양	하 양	빨 강	파 랑	까 망	노 랑	~앙
	음	허 영	빨 경	퍼 령	꺼 멍	누 령	~영
ㄹ	양	하양다	빨강다	파랑다	까망다	노랑다	~앙다<아ㅎ다
	음	허영다	빨ջ다	퍼령다	꺼멍다	누령다	~영다<어ㅎ다

(2. ㄱ~ㄹ)은 모두 一定한 接尾辭나 語尾를 가지고 있다.(앞으로 便宜上 全部 接尾辭라 부른다) 그리고 (2. 가. ㄴ. 양)의 ‘(힌)’은 지금은 使用되지 않으나 中世國語에서는 使用된 것이다. (2. 나. ㄴ. 양)의 ‘*붉은’은 體系上 맞춘 것이고 實際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2. 다. ㄴ. 양)의 ‘?포른’도 사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그레하다, 포르스럼하다’등에서는 ‘붉-, 포르-’등이 色彩 表示의 語幹 機能을 하는 것이다.

3. 本稿의 目的은 色彩語 語源을 밝히는데 있고, 研究範圍와 對象은 固有 色彩語라고 할 수 있는 五色에 한한다.

II. 本 論

1. 五色의 語源을 찾기 위한 接近

1.1. 우리말은 名詞에 ‘-다’를 연결하여 動詞나 形容詞를 만드는 例를 볼 수 있다. 몇 개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ㄱ. ㄹ물(旱)+다 (旱) ㄴ. ㄹ(粉)+다 (磨) ㄷ. ㄹ(丈)+다 (長)
 ㄹ. ㅅ(帶)+다 (帶) ㄷ. ㅅ(물, 水)+다(澄)¹⁾
 ㄴ. ㅅ(腹)+다 (孕) ㅅ. ㅅ(靴)+다 (着靴) ㅅ. 안(內,心)+다 (抱)
 ㅅ. ㅅ(梳)+다 (梳) ㅅ. ㅅ(升)+다 (升) ㅅ. ㅅ(鼻)+ㄹ+다
 ㅅ. ㅅ(外,皮)+을+다 (荒) ㅅ. ㅅ(水)+ㄱ+다 (淡) ㅅ. ㅅ(水)+ㄱ+다 (清)

위(ㄱ~ㅅ)은 名詞에 바로 ‘-다’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 名詞에 用言化 接尾辭가 연결되고, 다시 ‘-다’가 연결된 것으로 이 例들도 (ㄱ~ㅅ)과 마찬가지로 五色을 나타내는 形容詞의 語源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假定下에서 例를 들었다.

1.2. 五色의 語幹 形態를 알아 보기 위해 于先 (1.2)에 보인 表에서 接尾辭를 除外시킨 形態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양음	가	나	다	라	마	접 미 사
ㄱ	양	하	빨	파	까	노	~안
	음	허	빨	퍼	꺼	눌	~언
ㄴ	양	(흰)	붉	포	검	노	~은(은)
	음	흰	붉	푸	검	누	~은
ㄷ	양	하	빨	파	까	노	~앙
	음	허	빨	퍼	꺼	누	~엇
ㄹ	양	하	빨	파	까	노	~앙다<아흐다
	음	허	빨	퍼	꺼	누	~엇다<어흐다

(위 표에서는 語幹이 接尾辭와 연결되면서 脫落한 音韻이 있지만 복원하지 않았음)

2. 五色의 語源 探索

2.1. ‘희다’의 語源

2.1.1. ‘희다’의 中世國語의 語形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흰 뜨즈게 희에 께니이다(維時白虹貫于日)<龍歌50章>
- ㄴ. 白은 흰씨라<月釋1:22>
- ㄷ. 흰 쇼 | 저줄 取하야(取白牛乳)<木罈解7:5>
- ㄹ. 흰 백 白, 흰 소 素<訓蒙中29>
- ㄴ. 누 흰 튀로 나온 지의 브렛느니오(誰依白茅屋)<杜解9:5>
- ㄷ. 구루미 희오 외히 프른(雲白山靑)<杜解11:11>
- ㅅ. 흰 옷 니브며 흰 씨 씨고<呂約9:27>
- ㅇ. 흰 소 素<類合下29, 石千29> 흰 백 白<類合上5, 石千6>

위(ㄱ~ㅇ)의 기록을 보면 ‘희다’의 中世國語에서의 語形은 ‘히다’이고 그 語幹은 ‘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히다’의 壬辰倭亂 以後 近代國語의 記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ㅅ. 빳치 희우스라호야(色白)<痘瘡方49>
- ㅈ. 중크에 희조출흔 뇨치요(中等身材 白淨顔面)<朴新解3.13>
- ㅋ. 흰 ㅁ풀이 눈의 ㅁ리온더를 고티느니라(治…白翳遮睛)<馬解上101>
- ㅌ. 흰 권무 공인절미 자채술<古時調, 李庭 묵은 해>
- ㅍ. 알 흰즈의(蛋淸)<漢淸文鑑>

위(ㅅ~ㅍ)의 記錄에서 보면 ‘희다’의 語形은 現代國語의 語形과 꼭 같고 그 語幹은 ‘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事實은 아직 다른 語彙에서는 ‘·’가 남아 있는데 비해 ‘白’을 나타내는 語彙에서는 ‘·’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무리 音韻變化가 語彙에 따라 浸透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어떤 理由가 介入하였을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1.3에서 說明하기로 한다.

위(ㄱ~ㅍ)을 통해서 볼 때 大略 壬辰倭亂을 境界로 ‘히- > 희-’로 된 것을 確認할 수 있다.

2.1.2 그러면 中世國語의 語幹 ‘히-’는 그 語源이 무엇일까? 이는 같은 中世國語의 ‘히’(太陽)과 語形과 聲調(上聲)가 一致하고 있다.

- ㄱ. 흰 뜨즈게 희에 께니이다.(維時白虹 橫貫于日)<龍歌50章>
- ㄴ. 日月은 히다리라.<釋譜9:4>

- ㄷ. 그제사 히드리 처엄 나니라.<月釋1:42>
- ㄹ. 미헛 히비촌 거춘디 불갸고(野日荒荒白)<杜解10:4>
- ㄴ. 히귀구 髣 (訓蒙上 2)
- ㄴ. 히 : 日頭 (譯語上 1)
- ㄷ. 다른 히 수이 디여 (松江 思美人曲)

그리고 ‘히-’는 ‘히’(年)와도 어형과 성조(上聲)가 일치한다.

- . 正統은 이젝 皇帝 서신 後로 상네 쓰는 히 일후미라.<釋譜序 6>
- ㄷ. 세 히를 奔走하야 돈노매.<杜解 21:5>
- ㄷ. 히 세 歲 히 년 年.<訓蒙上 2>
- ㄷ. 히 년 年 히 세 歲.<類合上 4, 石千 40>

위(ㄱ~ㄷ)의 ‘히’를 (Ⅱ.1)에서 보인 예들과 같이 ‘히(日)+다’로 보면 의미에서도 ‘白’과 아주 잘 부합하고 있어, ‘히-(白)’의 語源은 ‘히’(日)라고 斷言해도 좋을 것이다.

2.1.3 그러면 (Ⅱ.1.2)의 표 (가)에서 볼 수 있는 ‘하ㅣ’와 ‘허ㅣ’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說明의 便宜上 ‘허ㅣ’부터 설명하면 이는 語幹 ‘회-’에 ‘-어-’계 접미사가 연결되면서 일어난 音韻現象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Ⅱ.1.2)의 표 (가)의 (ㄴ.음)에서 보면 ‘-어-’계 接尾辭가 아닌 冠形詞形語尾 ‘-(으)ㄴ’의 연결에서는 ‘허ㅣ’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ㅣ’는 語幹 ‘회-’에 ‘-어-’계 접미사가 연결되면서 ‘회-’의 音節 核母音 ‘-’가 ‘ㅣ’를 사이에 두고 接尾辭 頭母音 ‘ㄴ’에 完全同化된 後에 音節 副母音 ‘ㅣ’는 앞의 變化된 ‘ㄴ’와는 下降二重母音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接尾辭 頭母音과 上昇二重母音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하ㅣ’도 마찬가지로 어간 ‘히-’에 ‘-ㅏ-’계 접미사가 연결되면서 어간 ‘히-’의 音節 核母音 ‘ㅣ’가 接尾辭 頭母音 ‘ㅏ’에 完全同化된 後 音節 副母音 ‘ㅣ’는 앞의 동화현상으로 變化된 ‘ㅏ’와는 下降二重母音을 이루지 않고 接尾辭 頭母音 ‘ㅏ’와 上昇二重母音을 이룬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說明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問題 때문에 妥當性을 認定받기 어려울 것 같다. 첫째, 中世國語에서 ‘히-’나 ‘화-’와 꼭 같은 音節母音을 가진 ‘비-’(孕), ‘미-’(繫)나 ‘피-’(帶), ‘괴-’(匄)의 語彙들에서는 完全同化와 分音化를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ㅣ’가 없어진 지금에도 ‘하ㅣ’가 나오기 위해서

‘히-’에 ‘-아-’계 접미사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즉 ‘히->회-’가 되면 소위 모음조화에 따라 ‘-’계접미사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 逢着해서 생각해 볼 때 語源形에 접미사가 연결될 때는 活用形과는 別個의 單語로 獨自的 發達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語源形 ‘히’(日)에 ‘-다’가 연결되어 ‘히다’(白)가 되고 이것은 ‘히다>회다’로 되지만, 이와는 別途로 ‘히다’에 對해서 語感의 差異를 나타내는 ‘회다’가 母音對應에 依하여 일찍부터 생겨난 것으로 본다. 이를 證明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記錄이다.

- ㄱ. 느는 벼른 므레 디나 해야호고.(飛星過水白) <杜解11:47>
- ㄴ. 해얀 ㅁ르멧 고기는 차바내 드리오눔다.(白白江魚入饌來) <杜解23:31>
- ㄷ. 서리엿 염교ㅣ 허여호닐 甚히 들노니.(甚聞霜薙白) <杜解7:40>
- ㄹ. 먼 두들게 ㅁ웃 몰애 허여호고.(遠岸秋沙白) <杜解10:3>

위 引用文獻 <杜解>에는 ‘회-’가 보이지 않는데도 (ㄷ,ㄹ)에서 ‘허여호-’를 볼 수 있다. 이는 틀림없이 ‘히-’의 陰母音形 ‘회-’에 ‘-어호-’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음으로 앞의 (2.1.1)의 (ㅈ~ㅍ)에서 볼 수 있었던 事實로 다른 語彙에서는 아직 ‘·’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데 어째서 ‘白’을 나타내는 ‘히-’는 全部 ‘회-’로 바뀌었을까 하는 문제다. 이는 틀림없이 ‘히-’에 對應하여 ‘회-’가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語彙보다 아주 이른 時期에 ‘·>ㅁ’가 이루어져 ‘히-’가 없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또 中世國語에서는 筆者가 古語辭典에 依한 調査로는 유일하게 ‘흰바회’<龍歌7권 7 咸陽註>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色感의 差異를 나타낸 것으로 ‘히’에 對應으로 생겨난 것으로 中世國語에서도 ‘회-’가 있었음을 證明하는 것이다. 以上の 論據에 비추어 볼 때 ‘회-’는 ‘히-’가 생긴 후 母音對應으로 存在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하ㅣ’와 ‘허ㅣ’는 ‘회-’의 語幹과는 別個로 다음과 같은 獨自的 單語로 發達하였다고 본다.

			앙	엇	아하다	어하다
어	원	형	히	히	히	히
용	언	화	히-	히-	히-	히-
모	음	대	-	회-	-	회-
접	미	사	연	결	히아하다	히어하다
모	음	역	행	동	화	해아하다
	모	음	순	행	동	화
	모	음	탈	락	하아하다	허어하다
음	절	축	약	-	-	하양다
표	면	형	하양	허영	하양다	허영다

※ 히(日)+다 → 히다 > 회다. 회+은 → 흰(一탈락)

※ 하양+ㄴ→하얀, 허영+ㄴ→허연

위 ‘하양+ㄴ’과 ‘허영+ㄴ’은 엄밀하게는 ‘하양+은’과 ‘허영+은’에서 ‘ㅎ’脫落하여 ‘하야+은’과 ‘허여+은’에서 다시 ‘ㅡ’脫落하여 ‘하얀’과 ‘허연’이 되는 것이다. 위 표의 接尾辭형에서 ‘안,언’이 없는 것은 ‘하얀’과 ‘허연’을 活用形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하다, 어하다’는 다음과 같이 형태소 분석이 될 것이다. ‘아,어’(부사형어미), ‘하다’(動詞化 또는 形容詞化 接尾辭) 이는 ‘붉다, 푸르다, 검다, 누르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위의 音韻變化過程도 特別하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指摘한 ‘비-’(孕), ‘미-’(繫)와 ‘찌-’(帶), ‘괴-’(匍)등의 語彙에서는 위와 같은 音韻變化過程을 밟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특히 위의 母音逆行同化現象은 ‘빨강, 파랑’등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 보면 色彩語에서는 微妙한 語感 때문인지는 몰라도 特異한 音韻變化過程을 밟아 변화한 것으로 본다.

2.3 ‘붉다’의 語源.

2.3.1 ‘붉다’에 該當하는 中世國語의 語形을 보면 다음과 같다.

- ㄱ. 브스웬 저괴 불근 무슨미 허니.(喪亂丹心破) <初杜解7:15>
- ㄴ. 불근새 그를 브러.(赤爵御書) <龍歌7章>
- ㄷ. 손과 발에 붉고. <月釋2:57>
- ㄹ. 외 나조히 半만 하늘히 붉도다.(山晩半天赤) <杜解1.33>
- ㅁ. 불근 소매 거문고에 다티더니라.(朱袖拂雲和) <杜解10:4>

ㄴ. 불글 단丹. 불글 적赤. 불글 홍紅. <訓蒙中30>

위 (2.3.1ㄱ~ㄴ)에서 보면 ‘불다’에 該當하는 語形은 두 가지다. 즉 (2.3.1ㄱ)의 ‘불다’와 (2.3.1ㄴ~ㄴ)의 ‘불다’이다. 그런데, ‘불다’의 用例는 아주 드문데 비하여 ‘불다’의 用例는 꽤 흔하다. 그리고 ‘불다’의 語形으로는 오히려 다음에서 보듯이 ‘밝다’(明)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더 많다.

- ㅅ. 聖性에 불ᄃ실썻.(聖性自昭晰) <龍歌124章>
 ㅇ. 희와 돌와 별왜 다 불디 아니호며. <月釋2:15>
 ㅈ. 珠는 불ᄃ 돌ᄃ튼 神奇호 구스리라. <月釋2:33>
 ㅊ. 體性이 불고 조호디.(體性明淨) <圓覺序58>

2.3.2 위(2.3.1ㅅ~ㅊ)外에도 더 많은 용례가 있지만 줄이기로 한다. 이로 볼 때 ‘불다’는 ‘明’의 意味로 주로 쓰였고 ‘赤’의 意味로 잘 쓰이지 않았음을 알려 준다. 그래서 (2.3.1ㄱ)의 ‘불다’도 語感を 살리기 위한 表現으로 여겨지고, 現在 ‘불다’의 中世語形은 위에서 確認한 대로 ‘불다’가 基本이고 語幹은 ‘불-’이다. 그런데 語幹 ‘불-’에서 用言化 接尾辭 ‘ㄱ’을 除外시키면 ‘불’이 남는다. 그러면 ‘불’은 무엇일까?

이는 中世國語의 ‘불’(火)과 語形이 같다.

- ㄱ. 城 밧과 브리 비취여.(火照城外) <龍歌69章>
 ㄴ. 煩惱ᄃ 불ᄃ티 다라나는 거실썻. <月釋1:18>
 ㄷ. 炎火는 더본 브리라. <月釋1:29>
 ㄹ. 불 혀어 門열오.(張燈啓中文) <杜解1:13>
 ㅁ. 불 화火. <訓蒙下35>

‘불’은 색깔이 ‘붉다’. 그러므로 ‘불다’의 語源은 ‘불’(火)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불’과 ‘붉-’이 聲調에서는 一致하지 않는다. ‘불’은 上聲이고 ‘붉-’은 平聲이다. 이는 ‘불’이 用言化하면서 聲調가 變化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불다’는 ‘붉다’의 母音對應語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불다’의 어원도 결국 ‘불’(火)이라고 할 수 있다. ‘불’은 ‘붉기’도 하지만 ‘밝기’도 하기 때문이다.

2.3.3 다음으로 ‘빨ㄱ’과 ‘빨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된소리는 語感의 強度 때문이며, 어간 모음의 변이는 (2.3.1)에서 언급한 어간 ‘붉-, 붉-’이 접미사와 연결되면서 접미사의 頭母音 ‘ㅏ, ㅑ’에 完全逆行同化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II.1.2)의 표(나)의 (ㄴ)에서 ‘아/어-’계 접미사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圓脣母音化만 볼 수 있고 母音同化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빨ㄱ’, ‘빨ㄱ’도 ‘붉다’의 活用形과는 別個로 發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붉-’에 ‘-ㄱ-’계 접미사가 연결되어도 ‘빨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붉+아, 붉+어-’가 하나의 어형으로 발달한 것을 말해 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2.3.4 지금까지 설명을 要約하여 變化過程別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어 원 형	앙	엉	아하다	어하다
용언화‘ㄱ’연결	블	블	블	블
모 음 대 응	붉-	붉-	붉-	붉-
접 미 사 연 결	붉-	-	붉-	-
모 음 역 행 동 화	붉앙	붉엉	붉아하다	붉어하다
자 음 연 철	밝앙	벌엉	밝아하다	벌어하다
음 절 축 약	발강	벌경	발가하다	벌거하다
음 절 축 약	-	-	발강다	벌정다
두음된소리되기	빨강	빨경	빨강다	빨정다
표 면 형	빨강	빨경	빨강다	빨정다

※ 빨강+ㄴ → 빨간, 빨강+ㄴ → 빨긴

※ 불(火)+ㄱ+다 → 붉다 > 붉다, 붉+은 → 붉은

2.4 ‘푸르다’의 語源.

2.4.1 ‘푸르다’에 該當하는 中世國語를 보면 다음과 같다.

ㄱ. 綠은 폭돌 씨라. <月釋8:10>

ㄴ. 푸르던 구왓 소곰 굵는 닛비치로다.(靑者官鹽煙) <杜解1:18>

ㄷ. 푸른 비치 柴門에 뒀다.(碧色動柴門) <杜解10:6>

ㄹ. 폭돌 벽碧. <訓蒙中30>

ㄱ. 瑠璃는 푸른 비젧 보비라. <月釋1:22>

ㅅ. 紺은 ㄱ장 프르거괴 붉근 겨치 잇는 비치라. <月釋10:52>

ㅅ. ㄱ늘오 보드라운 푸른 실로 밍ㄱ론 신평.(細軟靑絲履) <杜解9:23>

ㅇ. 푸른 ㄱ르미 흰 말와물 씨 찾느니.(靑江帶白蘋) <杜解21:3>

ㅈ. 푸를 靑靑. <訓蒙中30, 類合上5, 石千26>

위 (2.4.1 ㄱ~ㅈ)에서 ‘푸르다’와 ‘프르다’를 볼 수 있다. 이의 어간은 ‘푸르-’, ‘프르-’이다. 이 兩形態는 색깔에 대한 語感의 差異이고 意味의 差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를 證明하는 것이 (2.4.1나)과 (2.4.1사)이다. 왜냐하면 같은 ‘靑’을 翻譯하면서 달리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基本形을 ‘프르-’로 한다. 그 理由는 現在 ‘푸르-’에 基準하여 가까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프르-’는 論理上 저절로 ‘프르-’의 모음대응으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4.2 그러면 ‘프르-’의 어원은 무엇일까? ‘프르-’가 音節縮約되면 ‘플-’이 된다. 이는 中世國語의 ‘플’(草)과 語形이 같다.

- ㄱ. 甘蔗는 프리나. <月釋1:6>
- 나. 프리 처엄 나물 날오더 苗 1 라. <圓覺下二之-33>
- ㄷ. 붉 프레는 사슴이 우돗다.(春草鹿呦呦) <杜解9:12>
- ㄴ. 플 초草. <訓蒙下3, 類合上7, 石千6>

그러나 ‘플’과 ‘프르-’는 聲調가 다르다. ‘플’은 上聲이고, ‘프르-’는 平聲 去聲이다. 그러나 이는 用言化過程에서 변화한 것이고, ‘플’이 ‘푸른’것은 너무도 當然한 것이다. 그래서 ‘프르-’의 語源은 ‘플’(草)로 본다.

2.4.3 그러면 어간 ‘프르-’는 어떻게 된 것일까? ‘플’에 접미사 ‘으’가 연결되어 ‘프르-’로 된 것일까? 아니면 ‘플’의 上古形態가 ‘프르’였는데 여기에 ‘-다’가 연결되어 ‘프르다’가 되고 그 뒤에 ‘프르>플’로 語源形이 音節短縮되었을까? 이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筆者는 接尾辭가 介入한 音節擴大쪽을 택한다. 그 理由는 첫째, 語源形의 音節短縮이 있으면 이와 並行하여 語幹도 音節短縮이 되어야 適當하기 때문이고, 둘째, 명사가 용언화할 때는 접미사가 첨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2.4.4 그러면 ‘으’는 무엇일까? ‘길다(長)’와 ‘기르다(育)’에서 보면 使動化 接尾辭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 한가지 사실로 모든 ‘으’가 使動化 接尾辭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길다’, ‘기르다’처럼 同一한 語源形에서 派生하였다고 볼 수 있는 兩形態의 用例가 별로 없기 때문에 意味의 差異性을 指摘하여 共通點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으-’의 개입이 없는 ‘-다’와 意味의 差異를 드러내기 위한 ‘用言化 接尾辭’라는 漠然한 名稱으로 留保시켜 둔다.¹⁾

2.4.5 혹은 ‘으’에 대해서 (II.1)에서 본 ‘고(鼻)+ㄹ+다→꼴다, 꺾(皮,外)+을+다→거칠다(荒)→거칠다’에서처럼 ‘을’이 ㄹ脫落하여 ‘으’로 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合理的 假定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꼴다, 거칠다’에서는 ‘ㄹ’이 維持되는데 ‘푸르다, 기르다, 누르다’등에서는 왜 ‘ㄹ’이 脫落하는지 疑問이기 때문이다.

2.4.6 다음 ‘파르’와 ‘퍼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에 대한 中世國語에서의 어형은 다음과 같다.

- ㄱ. 紺은 불가 靑라홀씨라<法華 2:12>
- ㄴ. 靑 ㅁ시 내왓는 靑우미 파라호도다(渚秀蘆笋錄)<杜解 6:52>
- ㄷ. 파라호 虛空에 호르면(山碧空)<金三 2:34>
- ㄹ. 蕩蕩호야 正히 퍼러호고(蕩蕩正靑)<內訓 2:61>
- ㄴ. 서미 퍼러호도다(鳥嶼靑)<初杜解 10:45>
- ㄴ. 靑 어미 호마 퍼러히 나고(草芽既靑出)<初杜解 22:2>

이는 앞에서 살펴본 ‘하ㅣ, 허ㅣ’나 ‘빨ㅁ, 뺄ㅁ’과 같이 ‘ㅍㅍ-, 프프--’가 接尾辭 頭母音에 同化되어 생긴 것으로, 새삼 설명하지 않고 音韻變化過程만 提示하기로 한다.

	앙	영	아호다	어호다
어원형	플	플	플	플
용언화‘으’연결	프르-	프르-	프르-	프르-
모음대응	ㅍㅍ-	-	ㅍㅍ-	-
접미사연결	ㅍㅍ앙	프르영	ㅍㅍ아호다	프르어호다
으/으 탈락	프랑	프렁	파라호다	퍼러호다
모음역행동화	파랑	퍼렁	파라하다	퍼러하다
음절축약	-	-	파랑다	퍼렁다
표면형	파랑	퍼렁	파랑다	퍼렁다

- ※ 플(草) + 으 + 다 → 프르다 > 푸르다. 푸르 + 은 → 푸른(一탈락)
- ※ 파랑+ㄴ→파란(ㅎ탈락), 퍼렁+ㄴ→퍼런(ㅎ탈락)

1) 요즘 ‘날다’(飛)에 대해서 ‘날으다’가 종종 쓰이는데, 예를 들면 ‘날으는 슈퍼맨, 하늘을 날으는 무쇠덩이(비행기)’등이다. 그러나 이 예들도 ‘날다’와는 의미의 차이를 가지는 것 같다. 즉 전연 ‘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 때 ‘으’도 새로운 의미를 부가하는 접미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7 그리고 ‘파릇파릇’, ‘파르스름하다’ 등에서는 接尾辭 頭母音이 ㅏ가 아닌데도 어떻게 ‘파르’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프르-’의 母音對應語 ‘포르-’에 ‘-웃, -으스름하다’의 접미사가 연결되어 ‘포릇포릇, 포르스름하다’가 되고, 이것이 ‘ㅏ’의 消滅로 第一音節에서는 ‘아-’로 第二音節에서는 ‘-으’로 변하여, ‘파릇파릇, 파르스름하다’로 되는 것이다. 이를 證明하는 것이 ‘*퍼릇퍼릇, *퍼르스름하다’가 없고(만약 있다면 ‘퍼렁, 퍼렁다’에 類推된 것일 것이다) ‘푸릇푸릇, 푸르스름하다’만이 있기 때문이다.

2.5 ‘검다’의 語源

2.5.1 ‘검다’에 該當하는 中世國語의 語形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ㄱ. 거른 곳갈 쓰고 居喪 씩 띄며 <三綱孝子 35>
- ㄴ. 니 검디 아니호며 누르며 성괴디 아니호며<釋譜 19:6>
- ㄷ. 大便이 通티 아니호야 ㅓ장 브서 검프르러 알파<救急方下 32>
- ㄹ. 거믈 흑 黑<訓蒙中 30>
- ㄴ. 늙조식 감포르며<月釋 2:51>
- ㄷ. 감포른 마리 모르샤디<月釋 2:51>
- ㄷ. 가믈 현 玄<訓蒙中 30>

위 (ㄱ~ㄴ)에서 ‘검-’을 ‘ㄷ~ㅌ’에서 ‘감-’을 確認할 수 있다. 이는 語感의 差異에서 나온 것이고 意味의 差異는 아닌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검-’을 基本形으로 삼는다. 그 理由는 지금도 ‘검다’는 ‘검다’의 母音對應어로 여기는 것이 一般의이기 때문이다.

2.5.2 그러면 語幹 ‘검-’과 ‘감-’은 무엇일까? 그 語源의 端緒를 찾기가 무척 어렵다. 그런데 ‘千字文’ 첫줄에 ‘天地玄黃’이 나온다. 이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는 뜻이다. 그리고 兪昌均(1995:九夷攷)에 보면 <周禮>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한다.

구분	五行	方位	色彩	季節	(色彩源-筆者 添記임)
1	土	中央	黃	季夏	地之色
2	金	西	白	秋	殷之正色(殷은 銀이 아닌지?)
3	火	南	赤	夏	太陽之色
4	水	北	玄	冬	天之色
5	木	東	靑	春	東方之色

위 표 (4)의 ‘玄’은 ‘天之色’이다. 이런 根據에서 보면 ‘검’과 ‘검’은 ‘하늘’이 된다. 그래서 우선 ‘검’과 ‘검’을 ‘天’으로 보고 이를 證明하고자 한다.

(가) 地名에서

- ㄱ.a. 검암【바위】 경남 함안 가야 검암 → 하늘 바구
- b. 하늘바구【바위】 경남 함안 가야 검암, 중립 동쪽에 있는 바위
- ㄴ.a. 흑암【마을】 전남 여천 남 우학 → 건바우
- b. 건바우【마을】 전남 여천 남 우학, 우실동 동쪽에 있는 마을
- ㄷ.a. 흑암【바위】 전남 여천 남 우학 → 건바우
- b. 건바우[흑암]【바위】 전남 여천 남 우학, 건바우에 있는 검은 빛의 바위
- ㄹ.a. 건-바구[검은 바구] 경남 산청 금서 수철
- ㄹ.a. 건-바위【고적】 경기 김포 고촌 신곡 → 검바위
- b. 검바위[건-바위]【고적】 경기 김포 고촌 신곡 인양외 서북쪽에 있는 고인돌

위(ㄱ~ㄹ)은 <한국 땅이름 사전>(한글학회편)에 실린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a와 b는 相互 比較를 위해서 筆者가 配置한 것이다. 地名에는 民間語源이 쉽게 붙을 수 있지만 그러나 上古時代 言語의 조각을 化石처럼 保存하고 있는 貴重한 資料이기도 한 것이다.

위(ㄱ)에서는 ‘검’과 ‘하늘’이 바로 對應되어 있어 ‘검’이 ‘하늘’임을 疑心할餘地가 없다. 그리고(ㄴ,ㄷ)에서도 ‘검’과 ‘하늘’의 對應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흑’(黑)의訓이 ‘검-’이고, ‘건’(乾)의訓이 ‘하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ㄹ,ㄹ)의 ‘건’(乾)과 ‘검’의 대응에서도 ‘건’(乾)을訓으로 보면 위와 꼭 같은 ‘하늘’과 ‘검’이 對應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地名으로 ‘검’이 ‘하늘’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나) ‘ㄹ물다’(旱)와 ‘거문갈이’

우리는 지금까지 中世國語에 보이는 ‘ㄹ물’을 하나의 형태소로 된 名詞로만 보아왔다. 그러나 필자는 ‘검’에 根據하여 다음과 같이 ‘검+을+다’로 形態素 分

析을 하고자 한다. ‘굶’은 비록 表記는 다르나 ‘감’으로 본다. 이는 ‘검’의 母音 對應語로 (가.ㄴ~ㄹ)에서 보았듯이 ‘乾’과 같은 것이다. ‘乾’의訓은 ‘하늘’만이 아니라 ‘마르-’(乾)의 뜻도 갖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ㄱ물’에 ‘굶’은 ‘마르-’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을-’은 名詞化 接尾辭로 이는 다음 例文에서도 확인된다. “내 천량엇 거시 다울 업스니(我財物無極)<法華 2:75>, 서르 니셔 다울 업스삼 곤흐시며(如相繼無窮)<法華 6:86>” 그래서 ‘ㄱ물’은 ‘마름’(乾)과 같은 뜻이고 ‘ㄱ물다’는 ‘마르다’와 같은 뜻인 것이다.

우리는 ‘ㄱ물’을 ‘굶+을’로 분석하면서 ‘굶’은 ‘乾’이고 ‘乾’은 ‘하늘’이고 동시에 ‘마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결국 ‘굶’은 ‘하늘’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論理에서 ‘거문같이’도 마찬가지다. 이는 충청북도 보은군과 경남 창녕군에서 확인한 것으로 ‘마른 논을 가는 것’을 ‘거문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른(마르+ㄴ)’과 ‘거문(검+은)’의 對應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여기서도 ‘마른’은 ‘건’으로 ‘하늘’을 指稱하는 ‘검-’이 되지 않으면 ‘거문’과 같은 뜻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검’과 ‘乾(하늘)’의 同一 意味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 ‘검다’(黑)와 ‘감다’(瞑)

現用玉篇에 보면 ‘瞑’의訓을 ‘눈 감을 명, 어두울 명’이라고 하고 이를 ‘冥’과 ‘通’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한’ 것이다. 즉 어둡고 검은 것이다. 그래서 ‘감다’(瞑)는 ‘검다’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감다’의 陰性母音形은 ‘검다’이기 때문이다. 비록 ‘검다’(黑)와 ‘감다’(瞑)가 中世國語에서 그 語形은 다르지만 의미에서는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감’과 ‘검’이 ‘하늘’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빛이 너무 푸르다 못해 ‘검게’ 보였는가 모르지만) ‘黑’이기도 한 것을 앞의 (가.ㄱ)에서 확인하였다. 그래서 (눈을)‘감다’라는 말은 ‘검기’때문에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깜깜하다’도 결국 ‘감감하다’의 거센말로 결국 ‘검다’의 의미를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검다’, ‘감다’의 어간 ‘검-’과 ‘감-’의 어원은 ‘하늘’임이 밝혀졌다고 본다.

2.6. ‘누르다’의 語源.

2.6.1. ‘누르다’에 해당하는 中世國語의 語形은 다음과 같다.

- ㄱ. 비치 노르고. <月釋1:44>
- ㄴ. ㄹᄫᆞᆫ 雲霧 1 누르호도다.(江霧黃) <杜解10:45>
- ㄷ. 黃은 누를 씨라. <月釋1:22>
- ㄹ. 누를 황黃. <訓蒙中30>

위(ㄱ)에서 ‘노르다’와 (ㄴ~ㄹ)에서 ‘누르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兩形態는 語感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分化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누르다’를 基本形으로 삼고 ‘노르다’는 ‘누르다’의 母音對應으로 派生된 形態로 본다. 그 이유는 현재 ‘누르다’가 ‘노르다’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接尾辭가 연결된 形態에서는 ‘노랑’이 ‘누렁’보다 일반적이거나 어원을 밝히는 데는 접미사가 연결되지 않은 形態가 다른 음운의 영향을 덜 받은 形態이기 때문에 접미사가 연결되지 않은 形態를 취한 것이다.

2.6.2. 그러면 ‘누르다’의 語源은 무엇일까? 먼저 ‘누르다’의 어간부터 보면 ‘누르-’가 틀림없다. 그런데 앞에서 ‘푸르다’의 中世國語 語形은 ‘프르다’이고 그 어간은 ‘프르-’로 이는 어원형 ‘풀’(草)에 접미사 ‘으’가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르다’의 어간 ‘누르-’도 ‘프르-’와 同軌가 아닐까 싶다. 그 이유는 현재의 活用形이 꼭 같은 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르-’도 ‘눌 + 으-’로 볼 수 있고 그 어원형을 ‘눌’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눌’은 무엇일까? 우리는 (2.5.2)에서 언급한 <千字文>의 첫줄 ‘天地玄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고 볼 때 ‘누르다’의 어원으로 ‘땅’(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검다’의 어원이 ‘하늘’인 것이 앞에서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俞昌均(1995:九夷攷)에 언급된 周禮의 기록 ‘黃’ ‘地之色’이라는 기록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여간 이 두 기록으로 보면 ‘땅’은 ‘누른 것’이다. 그러면 과연 ‘누르다’의 어원형 ‘눌’이 ‘땅’인지 알아보자.

(가)

- ㄱ. 槐壤郡 本高句麗仍斤內郡<史. 권35>
- ㄴ. 黑壤郡(一云黃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史. 권35>

今勿內郡(一云萬弩)〈사.권37〉

ㄷ. 荒壤縣 本高句麗骨衣奴縣<史. 권35> 骨衣內縣 <史.권37>

위(ㄱ)에서 ‘壤’과 ‘內’는 對應의이다. 이는 平壤의 古名을 國內城, 不耐城, 尉那姑城이라고 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壤’은 확실히 ‘地’의 의미임이 틀림 없다. 그러므로 ‘壤=地=內’가 想定된다. 그런데 ‘內’의 음은 현재 ‘내’이나 上古音은 다음과 같다.²⁾

	T	K	C
內 (去) 1.	nwâd	nwəd	nwər
(去) 2.	nwâb	nwəb	nwər
(入) 3.	—	nap	nəp

위 ‘內’의 상고음 (去)1.은 [눌]에 유사하고 (入)은 [납]에 유사하다. 이는 ‘內’를 聲符로 하는 ‘訥’의 음이 [눌]이고, ‘納’의 음이 [납]임에서도 짐작이 된다. 그러면 ‘內’의 상고음 ‘눌’은 ‘누르다’의 어원형으로 가정한 ‘눌’과 같고 이는 現用 玉篇에서 ‘黃, 中央土色’이라고 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누르다’의 어원이 ‘땅’(地)임이 증명되고 ‘地=壤=內=눌=黃’이 된다.

위 (ㄷ.ㄷ)에서는 ‘壤’과 ‘奴’가 대응적이다. 그런데 ‘今勿奴郡’과 ‘骨衣奴縣’은 <史. 권37>에서는 각각 ‘今勿內郡, 骨衣內縣’으로 기록되어 있어 ‘奴’는 ‘內’와 등가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奴’가 現音 [노]이나 董同龢의 재구 상고음은 [nâg]로 당시 國音으로 [나, 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內’도 ‘內人’을 [나인]으로 읽은 것을 보면 ‘內’를 [나]로도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는 G. J. Ramsted (1949:161)가 지적한 남방 통구스 諸語(만주어, 골디어, 울차어)의 n a(the land, the country, earth, field)에 結付되는 것으로 ‘地’의 의미임은 확실하다.³⁾ 그래서 ‘地=壤=奴=內=눌=黃’(A)이 성립된다.

(나) 休壤郡一云金惱<史. 권37>의 기록에서 보면 ‘壤’과 ‘惱’가 대응적이다.

2) 漢字古今音彙(香港中文大, 周法高, 1973)의 再構音으로 T는 黃同龢, K는 B. karlgren, C는 周法高를 나타냄.

3) 金亨奎 : 增補 國語史研究 pp.11~12, 1990. 一潮閣 및 李基文 : 國語語彙史研究 pp.67~68, 1991. 東亞出版社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의미에 있어서는 ‘內, 奴, 惱’가 같겠지만 음에 있어서는 좀더 천착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惱’는 現音 [뇌]이나 董同龢의 재구 상고음은 [nɔ̃ŋ]로 이는 ‘腦’[nɔ̃ŋ]와는 同音字이며 ‘奴’의 상고음 [nâg]와 ‘弩’의 상고음 [nâg]와 유사하고 ‘那’의 재구 상고음 T [nâ], K [nâr], C [na/na]와도 통용되던 음으로 생각되며 ‘內’와도 통용된 것을 ‘詞腦, 詩惱, 思內’와 ‘國內, 不耐, 尉那’에서 짐작된다. 그래서 ‘壤=惱=腦=奴=弩=那=內=눌=黃’(B)이 성립된다. 그런데 ‘惱’는 ‘腦’와 同音字로 ‘腦’의訓은 ‘골’이다. 이 ‘골’은 高句麗語 ‘忽’과도 關聯되는 것으로 新羅語 ‘伐 또는 火’와 같은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골이 났다’가 ‘화가 났다’와 同一意味로 쓰이는 것에서 확인된다. 그래서 ‘腦’가 ‘땅’(地, 壤 또는 地方)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고 ‘內’와 같은 의미의 표기임이 틀림없다.

(다)

ㄱ. 黑壤郡(一云黃壤郡) 本高句麗今勿奴郡<史.권35>

ㄴ. 今勿奴郡(一云萬弩)<史.권37>

ㄷ. 黃驍縣 本高句麗 骨乃斤縣<史.권35>

위(ㄱ)의 ‘黃壤郡’은 (ㄴ)의 ‘萬弩(縣)’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기서 ‘黃’과 ‘萬’이 대응적이며 ‘壤’과 ‘弩’가 대응적이다. 그런데 ‘壤’과 ‘弩’가 같은 의미의 표기임은 (나)의 (B)로 확인된다. 그리고 ‘黃=腦=골’도 (B)로 확인되며 ‘萬’의訓이 ‘골’일 가능성이 ‘골 백 번’ ‘골 천 번’ 등에서 확인되므로 결국 ‘黃=萬’이 된다. 그리고 위 (ㄷ)에서도 ‘黃’과 ‘骨’의 대응을 볼 수 있는데 ‘骨’은 ‘腦’의 訓音表記로 보아 좋을 것이다.⁴⁾ 이로 ‘黃=萬=骨’이 확인되어 ‘누르-’의 어원이 ‘地, 壤’임은 분명하다.

(라) 필자의 고향은 慶南 昌寧郡 大池面 孝亭里 槐洞이다. 이 ‘槐洞’을 우리말로 ‘누름터, 누름티’라고 부르고 있다. ‘槐’는 現音[피]로, 재구 상고음은 T. [vwâd], K. [g'wâr], C. [gwâr]로 이는 [골, 꺾]과 유사음으로 그 뜻은 ‘골(洞)’

4) 위 (다)ㄷ의 ‘黃驍縣’과 ‘骨乃斤縣’의 대응표기에 대해서 김주원(1981:41)에 다음과 같은 여러 학자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다. ①俞昌均(1980:287) 骨乃[音] kalar 「黃」의 [訓] 고로 ②辛兌鉉(1958:44~45) 「骨乃」는 「골내」로 「건(것)」(黃)의 音借 ③村山七郎(1962)(고구려어) 骨(黃, 「日」ki) (馬淵 1979:4에서 재인용). 그리고 김주원(1981:41)에서는 十停의 衿色을 나타내는 靑·黑·黃·綠과 軍의 성격(馬兵, 騎兵 등)을 나타내는 驍·武·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했다.

로 앞에서 논의한 (나)의 (B)와 같은 것이고, ‘ㄹ>ㅣ’에 의하여 ‘괴, 궤’로 되고 그 訓은 ‘누름(느름)(나무)’이다. 그래서 결국 ‘누름터’는 ‘골(짜기) 마을’ 즉 ‘槐洞’가 되며, 이에서도 ‘골(骨=壤)’과 ‘누르-(黃)’의 대응을 볼 수 있다.⁵⁾

지금까지 ‘누르다’의 어원형이 ‘눌’임을 밝혔다. ‘누르다’는 ‘눌+으+다’로 이는 ‘푸르다’와 같은 軌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結 論

(Ⅱ)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말에는 (Ⅱ.1)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다’나 ‘명사+접미사+다’로 형용 또는 동사로 되는 경우가 많으며, 五色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모두 이런 방식에 의하여 造語된 것이다.
2. ‘희다’의 어원은 ‘해’(太陽)이고, 造語方式은 ‘히+다’로 된 것이다.
3. ‘희다’는 ‘히다 > 희다’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런 과정 以前에 ‘히다’에 對應的으로 ‘희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하ㅣ’ ‘허ㅣ’는 접미사와 연결되면서 접미사 두모음에 逆行同化된 것이다.
5. ‘불다’의 語源은 ‘불’(火)이고 造語方式은 ‘불(火)+ㄱ+다’로 된 것이다.
6. ‘불다’는 ‘불다’의 母音對應으로 派生된 것으로 ‘팍다’로도 변한다.
7. *‘불다’는 ‘불다’의 母音對應語로 派生된 것이다.
8. ‘발ㄱ’과 ‘벌ㄱ’은 접미사와 연결되면서 접미사 두모음에 逆行同化된 것이다.
9. ‘푸르다’의 語源은 ‘풀’(草)이고 造語方式은 ‘풀(草)+으+다’로 된 것이다.
10. ‘?포르다’는 ‘푸르다’의 母音對應으로 派生된 것이다.
11. ‘파-’ ‘퍼-’는 접미사와 연결되면서 접미사 두모음에 逆行同化된 것이다.
12. ‘검다’의 語源은 ‘하늘’이고 造語方式은 ‘검(天, 乾)+다’로 된 것이다.
13. ‘감다’는 ‘검다’와 母音對應語인 것이다.
14. ‘가들다’는 ‘궁(乾)+을+다’로 된 것이다.
15. ‘누르다’의 語源은 ‘눌’(地)이고 造語方式은 ‘눌+으+다’로 된 것이다.

5) 위 ‘槐洞’과 비슷한 地名으로 槐壤郡 本高句麗 仍斤乃郡 景德王改名 今槐州<史, 권 35>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俞昌均(1980:285) 참조 바람.

16. ‘노르다’는 ‘누르다’의 母音對應으로 派生된 것이다.

참 고 문 헌

- 金芳漢 : 1990 「韓國語의 系統」 民音社
 김주원 : 1981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연구」 석사학위논문
 金亨奎 : 1990 「增補 國語史研究」 一潮閣
 南廣祐 : 1982 「補訂 古語辭典」 一潮閣
 梁柱東 : 1954 「古歌研究」 博文出版社
 俞昌均 : 1980 「韓國古代漢字音의 研究 I」 啓明大學校出版部
 俞昌均 : 1995 “九夷’攷” 石堂論叢 제21집 東亞大
 李基文 : 1991 「國語 語彙史 研究」 東亞出版社
 周法高 : 1973 「漢字 古今音彙」 香港中文大
 G.J.Ramstedt : 1981, 「論文集 II」 太學社